

“아빠가 들려주는 음악이야기”

포천시 마홀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2월19일 오후7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포천시 마홀남성합창단은 오는 19일 오후7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아빠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1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포천시 마홀남성합창단(단장 최치 트홀 대극장에서 제11회 정기연주회 '아빠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마련하게 될 이번 연주회는

포천시와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한다.

이번 연주회 연주곡은 ▶모란이 피기까지는▶주여! 우리기도 들으소서▶농부가▶카츄사▶동요메들리▶Sailing,Sailing▶살가기 음식에 등을 연주하며▶사람의 몸을 일으킨 주님▶가고파▶생명의 샘▶오 거룩한 밤(O HOLY NIGHT)▶사공의 노래 등이며 포천시합창단과 대진 String 앙상블이 특별출연한다.

이번 연주회를 준비하는 최치선 단장은 “이번 공연은 대진 String 앙상블과 포천시합창단의 협연으로 예전의 공연보다는 볼거리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마지막 안무송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준비해 통일에 대한 의지도 함께 다지는 계기를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마홀남성합창단은 지난 1994년에 창단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아버지의 위상제고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일상에서 나오기 쉬운 율부짓음을 아름다운 합창으로 승화 시킴으로써 삶의 여유와 행복을 추구 하는데 합창단 운영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문의 019-9534-3464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문화칼럼

비극의 땅 간도(間島)



이희용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장

백두산 북쪽의 옛 만주 지금의 중국 동북(東北) 길림성(吉林省) 동쪽 끝에 있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 거의 해당되는 지역간도, 두만강 북쪽을 북간도(또는 동간도)라고 칭하고, 백두산 서쪽의 압록강 하류역 지린성 장백(長白) 조선족자치현에 해당되는 곳을 서간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간도지방이라고 하면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간도라는 지명의 세 가지로 각각 한글로는 같으나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세 가지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도(間島)라는 지명은 이 지역이 청(淸)나라의 발상지에 가까워 청나라 왕조가 봉금(封禁)의 땅, 즉 이주를 금하는 무인지대로 삼았으므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는 섬과 같은 땅이라 해서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간도(間島)는 조선 후기에 조선 농민이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또한 간도(民島) 조선의 정복과 정동 사이에 자리잡은 방향인 간방(良方)에 있는 땅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의 민족과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간도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멀리 잊혀진 땅으로 묻어버리고 100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허망한 세월을 보낸 것 같다. 국 제법상 100년 이내 2009년까지 소송을 제기 해 찾아야 한국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적효력이 유효하다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의 비극은 우리민족에게 내 땅도 내 마음대로 주인임을 주장하지 못하여 한스러운 비통함이 있기에 더욱더 답답하기만 하고 반드시 우리의 영토로 찾아야 하는 필연성이 있으므로 개략적으로 언급해 본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의 예를 들면 천주교의 문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1831년 9월9일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16세는 조선교구의 제를 허락하였다. 그리고 수차례의 대 탄압에도 불구하고 1920년에는 경성교구에서 함경 남 북도와 간도지방을 분리 원산교구를 설립 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조선 숙종 시대부터 간도지방의 영토의 회복운동이 있었다는 근거가 있으나 조선정부의 의지를 대변하고 외교권을 탈취한 일본제국 주주의 만주침략의 개략으로 만주철도건설권을 얻기 위해, 소위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선정부는 간도와 길림지역을 청나라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바티칸 정청은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한국민족이 거주한 것을 인정해 대한제국의 영토로 표기했었던 기록이 존재한다. 그리고 1965년 일본은 한국을 대신하여 그 강압시대의 모든 조약을 무효로 선언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간도와 길림지역은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도교한국연구원 국경 자료지도 81호 명지대학교 출판부 복사해설) 라는 기록도 존재한다. 한편 1712년 청나라 강희제는 조선과 청의 국경선 획정을 위해 사신 목극등(穆克登)에게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분수령에 높이 70cm, 폭 55cm의 돌비석을 세우기로 하고, 그 비에는 ‘서위압록(西爲鴨綠) 동위토문(東爲土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른바 ‘백두산정계비(白頭山正界碑)’라는 조-청 국경의 말뚝이 박힌 것이다. 이로써 서간도 1만9천여km의 영토 전체는 청나라 땅인 양 되어버리고 토문강 이북 북간도 지역은 조선의 땅으로 획정된 것이다. 그 이후 1882년 고종 19년, 청은 조선 조정에 간도 지역에 사는 조선 사람들의 철거를 요구한다. 이 무렵 조선인은 함경도 관찰사로부터 땅 소유권 문서를 발급 받고 지적부에 등기한 후 세금까지 내고 있었다. 청나라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간도 거주민에게 주권을 행사했다.

이에 군사적 충돌이 10여 차례나 일어났고 간도영유권 분쟁이 서서히 싹트게 된다. 분쟁은 러-일전쟁으로 잠시 종전되었다가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간도 문제는 급기야 일본의 손으로 넘어간다. 일본은 만주를 통째로 삼기기 위한 수단으로 1909년 간도 협약을 맺고 우리 땅 간도를 중국에 넘겨 버리고 말게 된다. 영토 문제는 대개 100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는 게 국제법의 통례다. 현재 독도가 한국 땅이지만, 이에 대해 일본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서 우리에게 계속 항의성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 국제법상의 시효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문제는 향후 6년 후인 2009년에 100년을 맞아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외교적 문서를 틈틈히 보내야 한다. 정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간도 문제를 제기하면 통일 후 간도가 다시 우리 민족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이 간도 문제는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의 공동연구가 철실하게 필요하며 중국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속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족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우리 포천의 선각자들이 이곳을 근거로 독립운동을 하였던 비극의 땅 간도. 지금도 조선족이 살고 있는 2만 천여명의 광활한 우리의 북방영토 간도. 이런 북한과 인접해 있어 영토수복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관심하게 되어 버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간도는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의해서 조선 영토였고 1909년 청-일 간도협약으로 강제로 빼앗긴 땅이기 때문에 간도협약이 무효이니 1712년 백두산정계비 상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영토 전문가들은 그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을사조약이 무효이니 간도협약도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에서는 간도협약 제 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땅이 러시아 혹은 중국 땅이 된 것에 대한 변천사를 논문 등을 통해 입증하고 근거자료를 계속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뒷심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간도를 되찾기 위해 한

간도도 우리민족의 주활동 무대 한국정부의 간도협약 제소 시급

국민이 해야 할 노력은 결정적인 유품과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 유물이 훼손되면 그만큼 간도영유권 주장이 어려워질 때 된다.

국제법적으로 영토분쟁이 있을 때에는 현지 주민의 투표 결과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따라서 고구려와 발해는 순수한 우리의 조상이란 걸 알리고 간도에 사는 2, 3세대의 투철한 역사적식과 민족의식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민방에 우리의 주장이 객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도는 남 북 통일이 되면 남북이 중심지로 부각된다. 국제 사회의 냉정판 결과물도 간도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역사적으로 간도는 환웅 단군의 통치 지역이었고 고구려의 활동 무대였으며,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주 활동영토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우리 민족의 영토이다. 고려 시대와 조선시대 전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여진족과 거란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으나 이후 우리 민족이 이주해 개척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땅의 주인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일제 시대에는 청산리대첩과 봉오동전투 등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로 민족정신을 일깨운 현장이었다.

오늘날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의하여 지린성에는, 거의 북간도에 해당되는 지역이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설치되어 있고, 압록강쪽의 서간도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장백조선족자치현(長白朝鮮族自治縣)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두 지역을 비롯한 간도 지린성에는 104만(1982)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이들은 조선족 특유의 생활·풍습과 민족문화를 유지하고 자녀 교육에 열성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교묘한 정책으로 인하여 점점 더 어렵게 꼬여만 가는 애처로운 우리의 간도를 꼭 찾아야 한다.

우리가 간도의 영토를 환수 받으려면 현재로서는 북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입연한 우리의 고구려와 발해의 주장에 우리에게 계속 항의성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 국제법상의 시효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문제는 향후 6년 후인 2009년에 100년을 맞아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포천아마추어 예술인의 구심체

포천예술인동우회, 제15회 정기회원작품전

추위진 날씨속에서도 이지역 예술인들의 열정은 뜨겁기만 하다.

포천시 반월아트홀 전시실에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포천예술인동우회의 '제15회 정기회원작품전'이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그리고 포천 문화원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30여명의 회원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정진해온 작품활동의 결실을 선보였다.

포천예술인 동우회는 지난 1989년 창립한 이래 문학, 미술, 서예, 사진, 음악 등 예술창작활동을 목적으로 모인 예술인들의 단체로 이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해 왔다.

박운국 포천시장장은 “창립이후 지난 15년동안 꾸준히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포천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구심체 역할을 해왔다”며 포천예술인동우회를 격려했다.

강동희 포천예술인동우회 사무국장은 “작품의 출품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작품의 질과 내용은 훨씬 향상되었다”면서 “시의 재정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작가는 미술부문 홍명진, 하지갑, 김삼수, 김계영, 박종국, 이상열, 조미경, 이정림 씨들이며 서예부문은 이병찬, 박재교, 김철영, 최영진, 장동원, 양영옥, 정수옥, 김병역, 이상욱, 한 용, 이순환, 안숙자, 윤남욱, 사진부문은 강돈희, 강진희, 김덕기, 강진호 서각은 손상용 씨 등이 참여했다.

백성주 기자 pae1031@nate.com



포천시 반월아트홀 전시실에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포천예술인동우회의 '제15회 정기회원작품전'이 개최됐다.

‘모든 음악이 한자리에’

정통 클래식, 재즈, 팝 그리고 대중음악의 향연이 포천 반월아트홀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오는 13일 오후6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 소공연장에서는 포천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목관5중주단·아카데미아 금관5중주단' 초청음악회가 열린다.

(사)한국예총 포천지부에서 포천시와 포천시의회를 후원해 받아 개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포천시민의 음악예술품 정서함양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료료가 무료이다.

서울목관5중주단은 지난 1984년, 당

시 서울시 교향악단의 성필관(Ob), 이광구(Hr), KBS교향악단의 김대원(Fr), 김현곤(O), 윤상원(Bn)으로 구성되어 우리 음악계의 목관 실내악의 시초를 이루었으며 구성원 모두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다. 또 아카데미아 금관5중주단은 지난 1997년 3월 창단한 금관 실내악 단으로 그동안 클래식, 팝음악 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하여 실내악의 새로운 기원을 열어가고 있다.

공연문의는 포천예총 (031)531-8181로 하면 된다.

백성주 기자 pae1031@nate.com

2005년 100억원 규모 투자사업 발굴 추진

문화관광·체육-지역특화사업 투자방향서 체결



포천시는 지난 2일 지역특화사업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투자방향서(LOI)를 체결했다.

포천시는 지난 2일 문화관광 및 체육 등 지역특화사업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투자방향서(LOI)를 (주)골든시네마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와 (주)골든시네마는 2005년 중에 100억원 규모의 민(외)자가 투자되는 사업을 발굴·선정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개발구상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번 투자방향서 체결은 지난10월27일 주)효원A&D와 체결한 바 있는 “배석산을 대상으로 한 5천억원 규모의 어뮤즈 콤플렉스·스카일드 조성에 관한 문화관광사업”에 이은 두 번째 성

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관광·체육 부문에 민간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중규모의 포천지역 특화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협약은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추진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의 앞당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래,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일류의 자치경영을 통해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려내고자 하는 시장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문화와 교양강좌 화려한 수료식 가져

포천문화원 문화학교 제1기 수료생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30일 문화원 2층에서 이정렬 부시장을 비롯해 문화원 임원, 문화학교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수강생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문화원장은 수료증교부 및 우수상, 봉사상, 개근상을 시상하고 인사말을 통해 무보수 자원봉사로 강의를 맡아준 강사들에게 감사와 함께 시종 진지한 자세로 수강에 앞장 결실을 맺은 수료생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내년에는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평가하여 미흡한 부분 보완 및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렬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평소 문화발전을 위해 애써온 관계자와 열악한 시설과 여건에서도 배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참여해 준 수강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문화와 교양을 배울 수 있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로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포천시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개강한 문화학교는 사물놀이, 종이공예, 우리춤체조, 꽃꽂이, 사군자 등 5개 과목으로 11월까지 64명이 참여하여 3개월간 총12주에 걸쳐 자아실현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문화학교에서 배운 사물놀이, 우리춤체조는 문화인 밤 행사 시 발표를 갖고 꽃꽂이, 종이공예, 사군자는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솜씨를 자랑하게 된다.

백성주 기자 pae1031@freechal.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18)

머리가 좋아지는 식품

「순무」 「흑임자 강정」 「송화다식」 「꿀물에 띄운 잣」 「산마름과 식초」 「약과」 「굴 무 밥」 「석이버섯」 「죽순」 「콩 강정」 「조청」 등은 동양에서 전래(傳來)되는 건뇌식품으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내 고향 포천의 산마름, 청산면 잣은 그 명성이 높다. 얼마 전 생산자 김창종이란 이름의 잣이 우체국 택배 특산품으로 나온 것을 보고 기뻐했던 생각이 난다. 포천의 산마름에는 산마가 자연산으로 내려 있다. 인제고 산에 가면 얼마든지 캘 수 있는 식품이다.

송화다식은 소나무 꽃가루로 만든 다식으로 매우 귀한 제사 음식이다. 늦은 봄 재래종 토종 소나무 꽃이 만발하며 온 마을의 냇물은 노랑색 불감으로 물든다. 그래서 송화다식은 이 송화를 따서 말려 씻어서 만든다.

송화다식은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설사를 하거나 식중독 시 복용하는 민방 약이기도 하다. 특히 토종꿀에다 잣이나 오미자를 띄워 마시면 그 맛이 일품이다. 콩 강정은 좀 딱딱 하지만 이를 토틀히 하는 찹쌀소 식품으로 일등이고 콩의 풍

부한 건뇌작용은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어 있다. 주먹밥만하다. 「레티신」이란 건뇌 식품이 있기 때문이다.

「조청」은 찹쌀과 수수로 만든 물엿이 최고인데 뇌력을 활성화시키고 뇌의 순발력을 강화시키는데 특효라고 하며 「글리코젠」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매일 아침 궁중에서 두 수저씩 왕자들에게 먹었다고 한다. 또 민간에서는 과거 시험에 통과하려고 과거 시험 보는 날 아침 응시생에게 조청을 먹었다고

한다. 옛날 산에 버섯을 따러 가면 바위에 난 석이버섯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조선시대 한중조 소주방 노비가 석이버섯 잡채를 좋아하는 한중 임금에게 석이버섯 요리를 맛나게 진상하여 참판벼슬에 해당하는 첩자를 하사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 바위의 정기를 흡수한 석이버섯이 머리를 좋게 하고 정기를 돌구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약과藥菓」는 글자 그대로 약이 되는 전통 과자의 대표적 식품이기도 하다. 태종조 태종 임금께서 신하들에게 하사하였던 원나라 사신이 왔다가 약과를 먹어보고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특히 약과의 모양새가 꽃, 과일, 동물 모양으로 만든 약과가 있어 연상하기 쉽다. 내 고향 각 가정에서 애용하던 전통 건뇌식품도 위 소개된 「순무」 「굴」을 제외하고는 다수 애용하던 식품이니 요즘 애용하고 고향 찾는 관광객에게 맛보임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하는 바이다. 필자 연락처 02-932-2434